

합천군,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기공식 개최

이영수 기자 ✉ / 기사작성 : 2025-04-20 13:43:59

지방소멸 위기 대응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은 지난 17일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복주택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인구 유출을 막는 한편 인근 지역 청년 유입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됐다.

기공식에는 김윤철 군수를 비롯해 정봉훈 군의장, 전(全)군의원,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유진 합천소방서장, 도기문 농협중앙회 합천지부장, 김호중 합천청년회의소 회장, 관내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무사고·무재해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은 합천읍 합천리 1544번지 일원에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되며, 저렴한 임대료와 청년 맞춤형 공간 설계를 통해 합천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첫 번째 공공임대

주택이다. 열악한 청년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며, 청년용 전용면적 37㎡ 20가구, 신혼부부용 전용면적 70㎡ 10가구 등 총 30가구로 계획돼 있다.

총사업비는 국비 2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70억 원, 군비 43억 원 등 133억 원이 투입된다. 기공식을 시작으로 12월 입주자 모집을 거쳐 2026년 6월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말에는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청년공공임대주택 30호가 착공될 예정이며,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공모사업'에도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군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윤철 합수는 "이번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을 시작으로 고령자복지주택, 청년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차례차례 건립될 예정"이라며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청년층은 물론 군민 모두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합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siminilbo.co.kr>]